

내 생애 최고의 ‘행운’ 이었다

기증자/ 강인보 님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나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의 고통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03년 9월 어느 날,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름을 확인하더니 무슨 은행이라는데 잘 안 들린다. “뭐라고요?” 다시 물었다. “여기는 한국골수은행협회인데요”하고 대답하는데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은행 이름을 들어 봤어도 골수은행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 이 은행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은행인가? 하고 생각하는 중에 상대 쪽에서 “혹시 조혈모세포기증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하는 물음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2년 전에 헌혈하러 갔다가 아내와 함께 조혈모세포기증과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한 기억이 떠올랐다.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서 지금도 조혈모세포기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전화였다.

“가족은 아시나요?”

“그럼요. 아내와 같이 등록 했는걸요.”

“그렇지만 혹시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당부 했다.

다음날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 잔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포아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안내서가 왔ندا. 조혈모세포기증 등록을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족이 해당되니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며 어쩔 생각이냐고 묻는다. 나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그건 개인도 아닌 이 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한다. 많이 고민하는 눈치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아내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얼마나 재수가 없는 놈인지 당첨되어 달라고 그렇게 공들이는 로또복권은 꼴찌도 당첨되지 않더니 조혈모세포기증하는 일은 잘도 당첨 된다고 했더니 피식 웃는다. 그래서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봉사활동 한번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기증을 결정하고 진행되는 동안 건강검진 결과나 건강의 이상으로 기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더니 결심한 듯 그럼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 드릴 거냐고 하는데, 뽕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우선 비밀로 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담당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통화하고 며칠 후 제주공학 의무실에서 유전자 확인을 위한 채혈을 했다. 그때부터 어떤 의무감과,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슬 마시는 것도 자제하고 매일 30분 이상 산을 오르는 운동을 했다. 건강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체력단련을 하는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에는 내가 다른 한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지만 금주와 식사조절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힘쓰며 수술 날짜를 기다렸다. 환자분의 상태도 괜찮았는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전자 확인을 위한 채혈 후 2개월여 만에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수술 일정이 잡혔다. 드디어 수술 전날 생전 처음 입원하는 병실에는 협회 이영민 과장님께서 먼저와 기다리고 계셨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먹한 분위기가 가실 즈음 환자복으로 갈아입도록 배려 해주시며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환자복을 처음 입어보는 나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환자복을 입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입원경험이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본 후에야 환자복을 갈아입는 해프닝을 경험해야 했다.

조혈모세포기증 하는 분들 대부분이 건강한 분들이라, 병원신세가 처음인 분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입원 후에는 수술 준비를 위한 검사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책도 읽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수술 하는 날 아침 처음에는 긴장될 것 같았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마음이 안정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갔다. 수술실에서도 마취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어보니 회복실이었다. 마취에서 깬 후 입원실로 옮겨지고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를 깔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염려했던 것보다 회복이 빨라 다음날 오전에 바로 퇴원하여 이영민과장님 등 관계자분들의 환대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경험이 나에게 생애 최고의 큰 행운이었다. 나에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의 권한을 하루 빌려 주었다는 것은 생각 할수록 대단한 경험이다.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 욕심 같지만 은근히 기대도 해 본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나를 담당하여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신 유효순선생님과 조문희선생님, 양성희선생님, 이영민 과장님, 그리고 함께 동행 하셨던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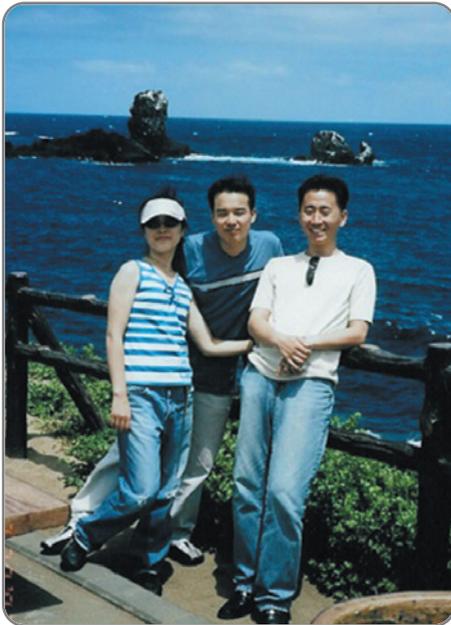
제주도 속담에 “가랑 몰라 봐사 알주”라는 말이 있다. “말로해서는 모른다.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안다.”라는 뜻이다.

조혈모세포기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신의 권한을 하루 동안 누리보는 것이 잠시의 고통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행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기증자 / 심동렬 님



기증자 / 심동렬 님 (사진 맨 오른쪽)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일이 크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한국골수은행협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유전자형이 누군가와 일치가 되었고, 저의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헌혈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한 헌혈을 하고 있었고, 지난해 봄에 헌혈을

하러 가서 우연히 조혈모세포기증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아 조혈모세포기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했지만, 막상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보다도 조금의 두려움이 저의 결심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한 후에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제가 조혈모세포기증을 한 사실을 모르시고 계신데, 그 점이 조금 죄송합니다.

조혈모세포기증을 결정한 후에 반복을 하면 기증을 받기로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수술을 위한 마지막 검사를 받기 까지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기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두 분의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실로 향했습니다. 그 때의 기분은 특실로 가 본다는 생각만으로 흥분되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코디



네이터 선생님을 숙소로 보내고 병실에 홀로 남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정말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낌은, 솔직히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수술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혹시나 깨어나지 못하면 어찌지’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억지로 청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수술 때처럼 편안한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오니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간병을 하기 위해 와준 후배가 절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말이죠. 수술을 마친 후 다음날 오전까지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기는 했지만, 하루 동안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한명의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에 충분히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 며칠 동안은 걷는데 조금 어색했지만 생활에 있어서 다른 불편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기증을 하기전과 동일한 생

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조혈모세포기증을 한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접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친구들 사이에선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조혈모세포기증을 한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전 아직도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운이 좋았고 생각을 합니다.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니까 말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동안 기증을 받은 분께서 건강을 회복하셨는지 한 번도 여쭙어 보지 못했네요. 늦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죠??

만약 저에게 다시 한 번 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 번 기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많이 도와주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기증에 동참을 해서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

기증자 / 유흥근 님



많은 날을 살아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많은 희생 없이도, 그냥 작은 생각만으로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년 여름쯤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나가는 길에 내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았다. 우편물을 보낸 곳은 당시 한국골수은행협회란 곳이었다.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난 후라 거의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이곳에서 나한테 우편물을 보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바쁘게 나가던 터라 뜯어보지도 않고, 차에 던져 놓은 상태로 저녁까지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차 정리를 하다 밑에 깔려있는 우편물을 보고 그때서야 뜯어보니, 나와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으니 도움을 달라는 거였다. 쉽게 결정 할 수가 없었다. 내 몸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모님과 함께 있고, 현혈과는 달리 기증 과정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었기에 겁도 났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과 상의를 하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좀 꺼리시는 눈치였다. 잠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음날 협회로 전화를 걸었다. 환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비혈연간의 기증이라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당연한 거였지만 단지 나와 조혈모세포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 누굴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환자인적사항 중 알려줄 수 있는 건 자식 둘을 가진 가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누나와 매형이 떠올랐다. 매형이 딸 둘을 가진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가족이 생각나면서 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기증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가슴속 답답했던 무엇이 사라짐을 느꼈다.

자가 수혈을 위한 현혈 두 번. 솔직히 한두 시간을 위해 청주에서 대전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조혈모세포를 받을 사람을 위해 피를 빼려 갔

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나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병원에 문병은 갔어도, 내가 환자 옷을 입고 누워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봤었다. 수술 전날 입원을 하고 환자 옷을 입고서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입고 누워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수술 날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를 듣고 난 후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생전 처음 해보는 전신 마취에, 수술이 끝난 후에 너무나도 아픈 내 자신을 보고 후회도 많이 했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감수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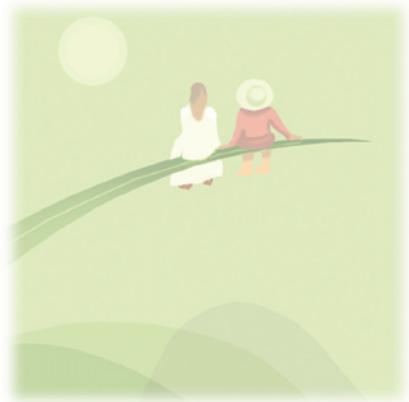
남들은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면 평상시처럼 움직인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왜 남들과 틀리게 한 달 동안 아팠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 생각 중에 제일 크게 느낀 건 내가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미리 사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올해 3월 초에 사고도 났었다. 물론 그때 차는 폐차를 시켰지만, 나는 거의 아무 일 없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나 내 생각에도 조혈모세포기증을 하고, 그때 받은 축복으로

난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날수 있었던 거 같다.

기증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만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몇 번이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앞으로 나는 헌혈이면 헌혈, 조혈모세포기증이면 기증, 모든 것을 떠나 나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다...





나누어 주는 기쁨

기증자 / 윤승주 님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연결해주는 협회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제가 평소에 기증에 대해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주 가는 헌혈의 집에 비치된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서를 보고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눠 줘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기증신청을 잇고 있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는 일 없이 잠시 쉬고 있을 때라 더 좋은 기회였죠. 처음에 담당자 분이 오셔서 기증에 대한 면담을 가졌어요. 혹시나 잘못 될 여러 상황과 일어날 일들, 주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동의 하겠냐고요. 꼭 기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약서를 쓰고, 정확한 유전자검사를 위해 다시 한 번 혈액을 간단히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가끔 기증자가 기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환자에겐 거의 사망선고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기증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겐 연락 하지 않고, 친구에게만 “나 기증 하러 간다.” 라고 말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헌혈 하는 것조차도 말리는 분위기라서요.

담당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수술전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수술 이후의 주의 사항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참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잠도 편안히 잤습니다.

수술날 아침 일찍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오셔서 옆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취주사를 맞고 바로는 잘 몰랐는데, 수술실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어요. 수술실에서 추위에 이불을 찾는 도중에 거의 잠에서 깨어났고, 사람들이 수술대에서 저를 침대로 옮기고, 다시 병실로 돌

아 온 모든 과정이 기억나요. 꿈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잠시 다시 자고 일어나니 허리 밑에 지혈하는 모래주머니가 조금 거북하구 불편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취가 깨고, 화장실에 갈 때 조금 아프다고 느꼈죠. 그래도 정말 참을만 했습니다.

제가 의료 계통에서 5년 동안 근무 했기에 지혈이 잘만 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허리가 불편했지만 지혈하는데 좀 더 열중했습니다. 나름대로 몸을 조금 구부려 강하게 스스로 지혈도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 편해지더라고요. 수술실에서 나온 지 4시간도 안 되서 혼자 화장실 가고, 8시간 지난 후엔 병실 여기 저기 걸어 다닐만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해도 되겠다고 했더니 하루는 병원에서 자고, 안전하게 퇴원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런 불편함 없이 퇴원했습니다.

걸어 다닐 때나 화장실에서 조금 어색 했지만, 크게 불편한건 못 느꼈습니다. 모두들 체질이 워낙 건강해서 회복이 빠른 거라고 하시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건강할 때 다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증하실 분들, 지혈할 때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외엔 다른 건 힘든 게 없습니다. 퇴원 후 한 일주일간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 없었어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주의 사항만 꼭 지켜 주시면 회복도 빠르답니다. 기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촌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친구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런 병을 앓고 난 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도 기증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기증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증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 자신이 선택되었다면, 처음에 결정을 잘 내리시고 꼭 끝까지 기증해 주셨으면 해요. 환자에겐 마지막 기회거든요.

